

다산포럼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촛불 혁명과 경제권력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힘을 말한다. 그 힘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 헌법이고 그것도 1조이다.

정치권력은 국민에게 있는가? 선거 때만 잠시 그럴 뿐이다.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이면 국회의원이면 스스로 약속한 공약조차 갖가지 핑계를 대며 지키지 않는다.

그럼 경제권력은 국민들이 차지하고 있는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은 시민의 의사를 물어 확인하고 청와대나 국회에서 결정하는가? 민주당이 1차 재난지원금 지원 시 일부 그런 적이 있지만, 여전히 불충분하다. 가계의 건전성보다 주권자 심부름꾼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표 심부름꾼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홍남기 부총리는 주권자 가계의 건전성보다 '재정의 건전성'을, 전광훈 목사가 하나님 모시듯 내세우고 있다. 그런 이를 민주 정권 최장수 경제부총리로 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재정권력은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에게도 있지 않다. 박정희·전두환 이래 수십 년 주중 관계를 맺어 온 경제 권

력과 불법 부패 세습(‘불부세’) 재벌 총수에게 있다. 금융권력도 국민에게 있지 않고, 한국은행에도 극히 일부만 있다. 이명박이 만든 전 세계 그 어느 곳에도 없는 금융위원회를 통해 불법 부패 세습 재벌 총수들이 실제로 금융권력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대책을 수십 차례 발표하고도 아파트 값 상승을 잡기는커녕, 통계조차 제대로 못 내놓는 문재인 정부이다. 부동산권력도 여전히 천문학적인 업무용 투기용 부동산을 소유한 불법 부패 세습 재벌 총수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제권력은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이명박근혜’ 정부 못지않게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경제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진정한 ‘경제 민주화’이다. 가짜 기자 삼성 임원의 국회 로비로 이재용 부회장은 커녕 그 밑의 사람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안 부르면서 ‘공정경제 3법’을 고치겠다는 민주당도 믿기 어렵다. 이미 4·19 뒤 자유당처럼 청산되어야 할 적폐 정당의 전두환 아들들에게 ‘경제민주화’ 정강 정책을 믿고 또 속아야 할 이유는 더욱 없다.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에서 핵심 피의자는 이재용 부회장이었다. 이견의 회장이 갑자기 쓰러진 직후부터, 현행법을 어겨 가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삼성물산 불법 합병 등 매우 악질적인 경제 범죄를 저질렀다. 그로 인하여 삼성물산 소액주주는 물론, 국민연금에도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

고등법원 정형식 판사 등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봐줘서 집행유예 상태인데, 이제 추가 혐의가 끼쳐서 기소된 상태이다. 정유라 등 마 비윤보다 수십 배 더 엄중하고, 조국 딸, 추미애 아들과 관련한 적폐 세력 주장이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보다 수천, 수만 배 심한 ‘불부세’ 재벌 총수(이재용)의 경제 범죄 행위에 대하여 사법부가 제대로 재판하여야 한다.

그렇게 가장 악질 경제범에게 법치를 확립하는 것이 대한민국 주권자들이 경제권력을 되찾는 첫 열쇠라고 믿는다. 그래야 삼성그룹 기업들도 잡히고 한국 경제의 위상도 코로나19 방역 대책에서처럼 높아진다. 판사가 제대로 판결을 안 하면 그회가 그 판사를 탄핵소추해야 한다. 그것이 4년 전 촛불을 든 시민들의 명령이다.

청춘 특·특

슈퍼맨은 없다



김혁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4년

기까지의 4년간의 이야기다. 재미있는 점은 적 놀랜드가 타고 있던 비행기가 택배를 잔뜩 싣은 상태였기 때문에 표류 끝에 도착한 무인도에 도착한 후 잠시 망가진 택배들과 송장에 손상을 입지 않은 단 하나의 택배도 함께 있었다.

송장이 망가진 택배는 나름대로 생존에 사용되었다. 송장이 무사한 단 하나의 택배 내용물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무엇인지 나오지 않았지만, 택배를 주인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감은 적이 섬에서 4년을 버틸 수 있게 해준 버팀목 중 하나였다.

적 놀랜드가 택배를 주인에게 돌려주기까지 걸린 4년만큼, 우리가 몇 번의 클릭으로 주문하는 택배들도 상당한 고난을 뚫고 올 것이다. 역대급이라 할 수 있는 장기간의 장마와 몇 번의 태풍, 택배 물량이 몰린 추석 그리고 코로나19를 뚫고 택배는 집 앞으로 배달되었다. 하지만 택배들을 통해 들려오는 이야기는, 진짜 택배 기사를 힘겹게 하는 것은 다른 이유라 말한다. 노동 시간의 43%를 차지하는

분류 작업이야말로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이다. 분류 작업에 대한 적절한 임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과도한 육체적 노동으로 인하여 택배 기사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택배 업계의 주장이다.

업무 과중으로 과로사한 한 택배 노동자는 하루 평균 한 개에 3kg나 되는 택배 250개를 처리해 왔다. 그 노동자는 오전 8시 반에 분류 작업을 시작해 오후 10시 가 넘어야 할당된 택배 배송을 끝낼 수 있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일급 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했다고 한다. 한 달에 한 명꼴로 과로사가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택배 기사의 21%는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 절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영화의 주인공 적이 4년을 버틸 수 있게 도운 또 다른 것은 ‘월슨’이다. 적이 배구공에 얼굴을 그리고 나뭇가지로 머리 장식을 해 만든 일종의 인형이다. 적은 월슨에게 남다른 애정을 보였고, 마지막 탈출의 순간까지 함께하려 했다. 월슨

이 파도도 떠내려가 함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구출에 나서기까지 했다. 겨우 배구공에 불과한 인형을 그토록 소중한 것만 같은 것은, 주인공에게 부여된 가장 큰 시련이 의식주 해결의 어려움이 아니라 외로움이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무인도로 날려 보냈다. 개인들은 크든 작든 코로나 블루가 불러온 외로움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웠다.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월슨이 되어준 이들이 불우임에서 종사하는 택배 기사를 포함한 필수 노동자의 존재다.

코로나19는 사람은 사회로부터 떠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었다. 필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분야가 멈춘다면 사회는 큰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다. 택배가 우리에게 월슨이 되어준 것처럼 우리 사회 역시 택배 기사를 포함한 필수 노동자들의 월슨이 돼야 한다. 쿠팡맨은 결코 혼자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슈퍼맨이 아니다.

기 고

‘원격 만남’으로 새로운 생활 문화를 즐겨 보자

외적 충격으로 급속하게 이루어지기도 한다.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적 전염병 현상도 참전히 바뀌고 있던 우리의 행동과 생활 양식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요즘 우리의 일상 생활은 많이 바뀌고 있다. 필자는 학부, 석사, 박사 과정의 교육을 실시간 화상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면서 학생들과 만나고 있다. 학생들과 직접 만나서 하는 대면 현장 수업보다 실시간 화상 원격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수업을 원격으로 하면 긍정적 인 부분도 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학생들이 물리적 거리와 관계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대구, 포항, 용인, 강릉 등 국내 여러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학생들도 참가가 가능하다.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세미나와 중국 쓰촨성에서 개최되는 국제 포럼에도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수업이 나 행사나 진행되는 장소에 직접 가서 참가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하지만, ‘원격 만남’으로 물리적 거리와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도 여러 나라에 흩어져 근무하는 다국적 기업 직원들은 ‘화상 회의’(Conference Call)를 활용했다. 우리나라도 제대로 활용되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와 세종시를 연결하는 원격 화상 회의가 운영되고 있었다. 대학교 수업도 원격 수업이 전체 교육 과정의 20% 이내에서 가능하였지만, 소수의 교육 과정만이 원격으로 진행되었다. 원격 소통이 기술적으로 가능했지만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자리 잡지 못했다.

이번에 ‘코로나 19’라는 세계적 전염병 현상이 우리의 삶에 강한 충격을 주었고 전 세계인이 모두 그 영향을 받았다. ‘원격 만남’이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빠르게 우리의 행동 양식과 생활 양식을 바꾸었다. 코로나19가 의학적으로 해결되어도 ‘원격 만남’이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은 우리의 생활 속에 새로운 문화로 남아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격 만남’을 어떻게 이해하고 향유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해야 한다.

오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순천에서 개최되는 ‘2020 전국 생활문화축제’

도 ‘원격 만남’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한 다양한 내용을 즐길 수 있다.

전국에서 12개 팀이 영상으로 참가하는 ‘제1회 전국생활문화밴드 경연대회’, 미리 배부된 소일담 꾸러미 원격 체험, ‘집생숙’(집에서 즐기는 전국생활문화축제) 등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10월 17일에는 생활 문화의 현재 방식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 문화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생활 문화 포럼’이 원격으로 개최된다.

‘원격 만남’이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잘 활용하면, 앞으로 ‘전국생활문화축제’가 ‘세계생활문화축제’로 확장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 일본, 중국, 브라질 등 여러 나라에서 생활하고 계신 우리 교포분들도 원격으로 이 축제에 참여하면 생활 문화인들 간의 교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생활 문화 축제의 내용도 더 풍성해질 것이다.

코로나 19로 시작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 새로운 기회가 있다. 올해 순천에서 개최되는 ‘2020 전국 생활문화 축제’가 ‘원격 만남’으로 그 새로운 기회를 여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社說

‘구멍 송송’ 한빛원전 사고도 대책도 없다니

한빛원전 3·4호기의 가동이 중단된 지 3년이 지나면서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원전에서 방사능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격납건물에서 수백 개의 구멍(공극)이 확인됐지만 현대건설이 한마디 사고도 없이 정비 업무를 다시 맡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책임 규명은 물론 주민 불신 해소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웅빈 의원은 그제 ‘현대건설이 한수원의 대국민 사과문 공동 발표 요청에 답변을 유보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원전 결함 발생에 대한 책임 분담을 논의하기 위해 한수원이 네 차례나 공문을 보냈지만 현대건설은 ‘시간을 달라’며 미루고만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6월 이후 국내 원전의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크고 작은 공극은 모두 330여 개나 된다. 특히 확인된 공극의 80%는 한빛 3·4호기에 집중돼 있고 이로 인해 여태껏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

런데도 현대건설은 원인 조사 과정에서 시공품질 보증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왔다고 한다.

지역민들은 특히 현대건설 측이 결함 발생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없이 부실 공사로 발생한 공극을 자신들이 매우고 안전성 여부까지 검사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구조물 건전성 평가’는 믿을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수원의 무기력한 대응도 문제인데, 지난해 한빛원전 결함의 원인을 파악하고 보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도 9명의 위원으로 구성만 했을 뿐 이후 단 한 번의 후속 회의도 열지 않았다.

현대건설과 한수원의 이러한 태도는 구멍이 송송 뚫린 원전 때문에 불안과 고통에 시달려 온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하고 정확한 원인과 책임 규명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전통시장 무등록 점포 코로나 피해 지원울

전통시장 내의 많은 무등록 점포가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었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새희망자금’ 등 각종 지원 대책에서 제외되고 있다. 무등록 점포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을 말하며, 전통시장이나 골목에서 노점을 하거나 자리를 이동해 영업하는 점포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된다.

정부는 지난달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새희망자금을 지원했으나 무등록 점포는 제외됐다. 무등록 점포는 지원 근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지원이 어렵다는 게 중기부의 판단이었다. 여기에 전국 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무등록 점포의 숫자로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의미 있는 통계가 나왔다. 광주 27개, 전남 102개 전통시장에 있는 점포 1만5988곳 가운데 무등록 점포는 6489개로, 그 비율이 40.6%에 이른다는 것이다.

광주 최대 규모 시장인 말바우시장의 노점 비율은 74.2%에 달했다. 이 같은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광산구 비아5일시장(62.7%)과 동구 광주해프는시장(60.8%)은 무등록 점포 비율이 60%를 넘었다. 장흥 화진시장(40%), 해남 좌일5일시장(35%), 진도 임회면십일시장(18곳) 등은 전체 점포 모두가 무등록 상태였다.

이들 무등록 점포가 소득 감소 증빙이 곤란하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지원 대책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형편이 어려운 지방·소규모 비상설 시장의 고령 상인일수록 무등록 점포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득 증빙 방법 다양화 등 특례를 인정하는 대책을 마련해 하루빨리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지난 추석 연휴에 느닷없이 소크라테스가 소환됐다. 기원전 5세기경에 활동한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가 21세기 한국 사회 한복판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그를 불러낸 이는 가수 나훈아이다. 나훈아는 지난달 30일 방송된 KBS 2TV 단독 콘서트에서 최근 발매한 신곡 ‘데스 형’을 공개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형’이라고 부르며 ‘데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오늘이 고맙기는 해도 내일이 두려워’라는 가사로 고

공연에서 “이 나라는 바로 여러분이 지켰다.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장자’들이 생길 수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정치적으로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코로나 사태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는 발언에 야권 인사들은 정부 비판적이라는 주장을 한 데 비해 여러 인사들은 아전인수적 해석이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추석 달에 담긴 민생의 어려움을 보는 대신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며 월가월부한 셈이다.

소크라테스는 스스로 무지한 체하면서 단란 삶을 노려했다.

질의와 응답을 반복함으로써 진리를 조각하듯 이기는 ‘문답법’으로 유명하다. 무지를 가장한

사상 유례없는코로나 19 사태로 ‘오늘이 힘들고, 내일이 두려운 형

로써 진리를 조각하듯 이기는 ‘문답법’으로 유명하다. 무지를 가장한

살’을 담은 이 노래에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세대도 깊은 공감을 나타냈다. 당장, 음원 스트리밍이 폭발하고 유튜브 채널에선 ‘데스 형’ 커버송(따라 부르기)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다. 또 아이돌 위주로 돌아오는 음원 사이트 순위에서도 이 노래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라고도 불린다. 인공지능 시대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것도, 21세기에 소크라테스가 느닷없이 소환당한 것도 어찌 보면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이 줄을 잘라라’는 격언은 코로나 시대를 관통하는 ‘희두’인지도 모른다. 어려운 시대,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스스로를 뒤돌아보며 사회적 연대를 통해 함께 미래를 열어 가야 하기 때문이다.

‘데스 형’은 정치권도 뒤흔들었다. 정치권 인사들이 SNS를 통해 나훈아 공연에 대한 소감을 았다투어 전하며 날이 처져 놓은 발상에 손가락을 얹은 것이다. 또 나훈아가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tuim@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만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위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경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이메일 opinion@kwangju.co.kr

<p>光州日報 The Kwangju Ilbo</p>		
<p>사장·발행·편집·인세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p>		
<p>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p>		
<p>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p>		
<p>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p>	<p><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행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p>	<p>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p> <p>*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p>
<p>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p>		